



서울올림픽 기념축제

全國
市立舞蹈團
舞蹈祭

'89.9.17 (일) ▶ 21 (목)
오후 7시 30분
국립극장

9.17(일)
부산시립무용단

빛이여, 靈의 노래여!



안무/홍민애

- 이화여대 무용과 졸업
- 동 교육대학원 졸업
- 부산 외국어대, 서울교대, 고려대 부산여대 강사역임
- 현재 부산시립무용단 상임안무자

〈주요안무작품〉

「강과 바람과 새」

「떠도는 靈의 노래」외



스탭

글/정영자

안 무/홍민애

훈 련/조영선

의 상/김성만

음 악/박콜린

조 명/신상준

음 향/정정식





작품해설

가치관의 혼돈과 흑백논리, 권세의 아귀다툼으로 희생된 원혼을 달래기 위한 춤이다.

제 1 장 / 불꽃속에 새로운 못다 이룬 내꿈

제 2 장 / 광란의 춤, 그리고 빛

제 3 장 / 북소리 - 신의 소리

내 용

제1장 / 불꽃속에 새로운 못다이룬 내꿈

내 영광
내 사랑
내 절망
내 원한

아
사랑했음에도 말뭏하였음이니
말씀에 말씀으로
떠도는 침묵으로 휘돌아가니

아! 아!
우리 서로 사랑하였음에
아픈 슬픔,
방황하는
시작과 끝의 골짜기

촛불 속에
불타오는 잃어버린 모든 것

불꽃속에 솟아나는
새로운 이야기들,

불꽃속에 흐르는
새로운 일곱을

제2장 / 광란의 춤 그리고 빛

격량과 증오의 세월속에
미움과 불신의 숲이자라
恨을 잠재우는
광란의 춤,
영혼의 별거벗음에
빛이 내리어

하늘 같은 북
땅같은 자비,

소리와 함께 빛이 내리어
광란의 춤은 운명의 예시자
빛과 소리속에 새로운 생명으로
몸부림친다.

제3장 / 북소리 - 신의 소리

없음으로 恨의 세월
이 골작 저마을
이 하늘 그 하늘에 아픈 충격 피 흘림

못다한 그 있음을
무당 불러 하늘을 열게 해

더듬 더듬 더듬
아니오고 말것인가,

이 산 저 산 다 두고
하늘가에 맺힌 恨을

북소리 낮게 낮게
높게 높게 더 높게
찾아나선 아픈 혼을
엇갈리며 흩어지며 다시 만나는
무당 무당 대무당

시공(時空)속에 어울려
무당 무당 소무당

빛이여, 靈의 노래여!
출 연



출 연

훈련장 : 조영선
총 무 : 최찬열
수 석 : 이송희 이윤희
자 석 : 장래훈 김영희

단 원 : 박순애 이현미 서순덕 안지희 김죽엽 서현미 홍기태 이익주 정효연 강영미 서정숙 정진희
최길자 정옥경 조미정 정이양 김현미 황경화 김향숙 김지연 강미향 안희영 정미심 김영희
박경아 신정미 이현미 김경옥 장향선 장은미 김숙영
강휘지 권정희 김명검 김동숙 오숙례 이현숙
객원출연 : 주동천 서보연 김찬영 성동현